



#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백두산강국의 천년 미래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입니다

피눈물의 12월로부터 새물결의 년들이 새겨지고있다.

지나온 3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매일, 매 순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혁명유산의 귀중성을 뼈저리게 절감해온 날이었으며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 리움과 고결한 충정으로 영웅적투쟁을 벌려 온 현연일체의 날이었다. 강성변영의 활로를 따라 출기차게 전진해온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군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은 언제나 우리의 심장속에, 우리의 생활속에 함께 계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는 뜨거운 열과 정으로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가꾸어온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한평생이었다. 숭고한 미려한, 후대사랑을 온몸을 불태우시었기에 불세출의 선군혁명적 혁명실록은 초인간적 전력과 결실적인 항쟁과정으로 수놓아졌고 동시조국의 위대한 전무후무한 거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몸이 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백두산강국의 천년미래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 1

혁명은 미래를 꽃피우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미래를 사랑하고 가꾸어주는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명도자의 중대한 역사적사명이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전적으로 명도자에게 달려있다. 개별적 인간이 미래를 훑아 보면 그 자신과 가정의 비극적운명으로 끝나는 죽어간 죽어간 자와 눈앞의 일에만 매달리면서 미래를 차오리지만 한 나라, 한 민족의 전도를 망쳐먹게 된다. 역사는 한때 세제적인 대국으로 명성높던 나라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 약소국가가 굴러떨어지거나 사분오열된 실례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에 관통되어있는 불타는 애국정신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류례없이 복잡다단하였던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의 첫 10년대에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나섰던 수많은 현실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훌륭하게 해결하시고 승리만을 펼쳐오신 최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그러나 어버이장군님은 당대에 가장 현명하고 성공적인 정치를 펼치신 명망높은 명도자이시기 전에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미래의 설계자, 파급무쌍한 개혁자이시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나라와 민족의 오늘을 물론 천만년 미래까지도 책임지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앞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절세의 애국자의 숭고한 미래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하게 분출되어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최고의 미래중시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새 아침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주기 위하여 불같이 사입하시다가 달려가는 야전철차에서 순직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오늘보다 더 많은 것을 중시하는 정정학을 확고히 전지하여오신 성스러운 한평생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미래에 대한 사랑의 높이는 그것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주는 혁명의 근본이 되고 목적이자 자기 대의 리익이나 근본의 안락이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꽃피우

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 어버이장군님의 뜻이고 철칙의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명도의 전 과정은 매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하여오신 행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나 전개하실 때에도, 어떤 문제의 리익을 타산하시여도 언제나 수십, 수백년을 내다보시며 조국의 장래를 우선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미래중시정치는 과학발전에서 선진적인 힘을 넣고 교육사업을 중대사로 틀어쥐고온데도 깃들여오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시키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 오늘뿐 아니라 후대들의 만복의 밑천이 되도록 보호조치를 위한 데도 여려웠다.

사실 오늘날보다 매일을 먼저 생각하며 후세에 평가받을 일을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국과 인민앞에 엄중한 시련이 닥쳐온 시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값비싼 대가를 치를것도 각오해야 하는 길, 그 누가 몰라준데도 희망안고 가야 할 길이 미래로 향한 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악의 시련을 겪던 시기 불거진 거리와 슬픔은 공상들을 지닌 인민군대들에게 대한 현시시찰의 길에 오르시었다. 식량이나 모자라 고생하는 인민들을 두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라도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라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기계제작공업의 현대화에 들리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한순간의 생활상안정보다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해, 번쩍거리려는 남의 기계를 사오는것보다 제힘을 키워야 했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최상의 선택을 하시였던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안중에서 자기 리해관계와 인간만을 추구하여 사이 비정치자들이 택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한평생 조국의 미래를 위한 험난한 길을 씀없이 걸으신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적품목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으며 휘황한 미래를 최대로 앞당겨오신 공적전의 한평생이다.

시간의 뒤를 따르고 조건과 환경에 종속되는것은 미래에 가꾸는 혁명가의 투쟁정신, 창조본능과 인연이 없다. 모든 가능성은 다 동원하고 불가능도 가능성으로 전환시켜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셨던것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라고 말할수 있다.

미래에서 당겨올수 있는 모든것을 앞당겨오라!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뜻이었고 위대한 장군님의 배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최대의 속도로 밀고나갔었다.

우리 조국땅에서 남들이 열었다는 것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단번에 앞을 내다보고 세기를 이어 꽃피우어 이어주는 것은 결코 조건이 유리해서가 아니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추시법이 안이온 역사의 기적이었다.

세계에서 제일먼저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는 단단한 애국에서 그 맥을 물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애당초 《답보나》 《불가능》, 《적당》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국과 후대들을 위한 만년제부의 탐을 뒤집어 씌어올려 미래를 당겨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공격정신이고 창조방식이다.

회세의 선군명장의 혁명실록에서 고난의 년대는 순탄한 시기에도 하기 힘든 거창한 사업들이 전격전, 립체전으로 끊임없이 벌어져 전격전, 대변혁의 년대로 빛나고있다. 100%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한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발사,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의 건설, 대대적인 토지정리와 자연회복식물공사,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리화하는 사업과 대규모 및 중소규모발전소건설, 시정경제사회의 표본공장들과 골지의 파괴생산기지

건설, 새물결 꾸러진 구월산과 칠보산, 룡문대굴과 같은 명승지들... 선군시대의 창조와 변혁은 이루 다 꼽을수 없다.

미래를 앞당기려는 투철한 힘장은 후대들을 위한 재부를 더 많이 창조할뿐 아니라 먼 후날에도 오늘이 나게 하는데 있다. 세기를 주름잡는 위대한 장군님의 창조적 세계는 언제나 최상의 수준에서 만년대계의 것으로 높은 요구의 수와 잇닿아있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하라!》는 구호말에 일떠선 선군시대의 창조물들은 위대한 김정일시대를 상징하는 귀중한 유산으로 세세년년 빛을 뿌렸었다.

행정이 총시된 후 제국주의반동들은 사회주의조선과 우리 인민에게서 미래를 빼앗고 파죽에 도둑질해우려고 사면팔방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전대미문의 역경을 강행돌파하고 세상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는 급속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전면적건설단계에 진입한 김정일조선의 기상은 현대정치사에 기적으로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 바치신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의 한평생이다.

인간의 생애는 한계가 있으며 귀중한 생의 순간순간을 미래를 위하여 불태우는 것처럼 값높은 헌신은 없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아껴가며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귀중한 자금을 기계제작공업의 현대화에 들리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한순간의 생활상안정보다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해, 번쩍거리려는 남의 기계를 사오는것보다 제힘을 키워야 했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최상의 선택을 하시였던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안중에서 자기 리해관계와 인간만을 추구하여 사이 비정치자들이 택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한평생 조국의 미래를 위한 험난한 길을 씀없이 걸으신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적품목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미래에 대한 헌신의 길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헤쳐온 로정이었다. 적들의 총구가 지적인 최전방초소들과 오성산악비행길, 파도쳐친 초도의 배를 온늘도 위대한 선군명장의 헌신이 얼마나 희생적이었는가를 뜨겁게 새겨주었고, 바로 이 길에서 눈보라강풍군, 삼복철강군, 삼야강행군과 같은 새로운 시대어들이 태어나고 오늘의 탁연의 천만리가 펼쳐져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도 인간이시며 그 누구보다도 가정과 생활을 사랑하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도 모두가 누리는 자유의 천리마에도 다 뒤로 미루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하여 한생을 강그러 바치시었다.

참으로 조국의 천만년 미래를 위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같은 애국의 력사는 남들이 감히 등뒤조차 벌수 없고 눈물없이는 더듬을수 없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적헌신의 대서사적이다.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는 위대한 열원이 있다.

어버이장군님의 불같은 미래사랑과 헌신은 위대한 백두산강국, 백두산민족에 대한 끝없는 애착심으로부터 출발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치시며 일평생 우리 조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는 대강국이 되어 천만년 위용떨쳐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 백두산민족의 혈통을 이어갈 우리의 후대들이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월등하고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삶을 누리야 한다, 이것이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우리 장군님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민족제일주의정신이다.

바로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비참히 높은 투쟁목표를 제기하시었고 항상 새물결은 시대적인것들을 창조하시였으며 이룩한 성과들을 만복을 모으시고 한평생 씀없는 공격전을 벌리시었다.

미래를 위한 어버이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은 강성변영할 사회주의조국의 매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고 하시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확신하고계셨다. 자신을 믿듯이 승리할 조국의 앞날을 굳게 믿으시었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과 후대들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걸고 또 걸으셨던것이다.

미래를 위한 어버이장군님의 희생적헌신은 숭고한 행복만을 기조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서 조국의 매일을 위하여 부리로 사는것은 가장 큰 행복과 영광, 자랑이었다.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매일, 그 품속에서 더욱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앞날의 모습을 그리시며 자신께서는 일하는것이 곧 휴식이요, 야근직이 제일이라고 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이시었다. 한평생 이렇게 투쟁하다 쓰러진데도 후대들이 그렇게 보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었다는것이 그이께서 지니신 행복판이었다. 이 고결한 정신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상상할수 없는 뼈저린 아픔도, 그 어느 위인도 겪어보지 못한 천만고생도 다 이겨낼수 있게 한 강철같은 의지의 원천이었다.

조국의 오늘을 위한 일도 애국이다. 하지만 자기 대에는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야말로 더 큰 애국이고 헌신, 만민이 가도 같이 빛날 진짜애국이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생이 가르쳐 주는 애국의 철학이다.

## 2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백두산강국의 천년 미래를 열어놓는 민족사적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강그러 바치시여 조국강성사업현실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한 나라, 한 민족에 있어서 창창한 미래를 가진것보다 더 큰 행복과 영광은 없다. 오늘을 비록 물질적편락을 누리다고 하여도 매일이 빛나는 민족은 결코 행복할수 없다. 일시적인 번영이 아니라 영원한 번영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는것이야말로 민족사적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업적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다 이겨내시며 어느 한 부문에도 아닌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백두산강국이 세세년년 존엄과 영광을 떨칠수 있는 만년초석을 다져놓으시었다.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업적은 바로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선군조선의 번영기와 더불어 이 전가와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는 업적이라는데 근본특징이 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김정일동지는 서거후에도 위대한분으로 칭송받고계신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찬란히 빛을 뿌리는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신 대성인에 대한 력사의 공정한 평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백전백승의 지도 사상과 지침을 마련하신것은 조국과 민족의 천년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었다.

과학적인 지도사상은 미래를 밝히는 해불이요 시대와 력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이다.

오늘 지도리념문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자주와 평화, 번영을 지향하는 나라와 인민의 앞날에는 기성의 리론과 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새로운 난문제를 허다하게 내시어고있다. 세계무대에서는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체제와 그것을 이끌어온 정치리론과 가치관이 총파탄에 직면하고 자본

주의가 완전한 붕괴에 치달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인연계와 종교계, 정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자본주의는 항방을 잃었다.》, 《자본주의사회를 주도할만한 한 사상도 리념도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등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들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사상리론적유산, 만능의 백과사전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제시하시어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나야 할 방향과 방도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리론과 방침은 시대의 발전추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사상리론이다. 우리는 과학적인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 자기의 작대기가 있기때문에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을 두려울것도 모를것도 없으며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 지난 3년간의 투쟁이 옹연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동지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확신있게 나아감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자주전과 생존권을 굳건히 지키고 천지개혁의 새 력사를 펼쳐놓았다.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주제사상, 선군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 건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열기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것은 시대의 보편적전력을 따르는 민심의 분출이다. 최후승리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가진 우리 조국과 인민의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의 강력한 주제적력량을 마련해주신것은 조국강성사에 영원불멸한 업적이다.

위세에 의존하여서는 어느때 가도 나라의 강성변영을 이룩할수 없다. 그것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가 바로 주제적력량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적력량에서 기본 자체의 정치력량, 혁명의 주체를 든든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어버이장군님의 탁월한 명도만이 우리 당이 수행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실하고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선군혁명의 힘있는 항도적력량으로 강건탄탄되었다. 특히 우리 인민군대물 사상과 신념의 강건으로 키우시고 인민군대를 핵심, 주력군으로 내세워 혁명의 주제강화의 새시대를 펼쳐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커다란 공적이다. 수행을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군조선의 최강의 힘이다.

부강조국건설은 대를 이어 진행되는 력사적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새 세대들을 훌륭히 키워주시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날이 갈수록 우세해지는 청소년들의 정신도덕적리악이 식량위기, 에네르기위기, 생태환경위기를 비롯한 심각한 위기보다도 해결전망이 어두운 사회적난문제도 제기되고있다. 결렬한 혁명정신과 풍부한 지식, 전진한 도덕모토를 지닌 청년들, 인제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군사적, 경제력량과 정치력량과 함께 주제적력량의 중요한 요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가치관에 백두산강국의 자주적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와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놓으시었다. 선군시대에 우리 나라가 강력한 주제적력량을 갖추어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하는 무적력량의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기의 불길속에 지식경제시대가 열리게 된것은 강성국가건설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현대적인 생산기지들, 선군문화의 본보기들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최근년간 우리의 정정당당한 조지들을 그 무슨 《엷은 위협》으로 외무박조하면서 온갖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제제압박과 군사적공갈, 심리모략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모든것이 물거품으로 되돌아갔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지원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조건속으로 창조하며 대비라, 내혁비라, 내혁비라 하고있다. 도처에 일떠선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창조물들마다에서 평범한 군인들과 근로자들,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지고있다.

물론 우리가 향유하는것은 아직은 시작이고 부분적인것이다. 세계적인 경제강국, 선진문명국의 명마루에 올라서자면 앞으로 또 방대한 과업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만이 우리의 강성변영을 이룩해나가는데 제일 어렵고 중대한 력사적과업을 달성한 우리에게 있어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업적은 명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명도의 계승문제를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제일 중대한 사안으로 보시고 그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었다.

오늘 우리 혁명에서는 명도의 계승문제, 단결의 계승문제와 전장,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도 또한분의 백두의 천출원인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특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수하고 세련된 명도만이 수행명령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처에 뿌려놓으신 강성변영의 씨앗들이 풍만한 열매로 주렁주렁 익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전선대들이 피로써 개척한 주체의 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보다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신 천만고고와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은 수백수천권의 책으로도 다 이야기할수 없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자신을 위해 남기신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고귀한 한생을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미래와 맞바꾸시었다. 민족의 온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의 해배로 끝없는 존엄과 행복을 누리며 뒤 우리 인민과 후손만대의 신강속에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광으로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오늘 세세들의 선군정치의 뜨겁고도 우렁찬 미래시절과 인민의 세세는 천만년대의 애국정신을 끝없이 승화시켜주고있으며 매일을 위한 위훈창조제로 역세게 떠밀어 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생존시에도 수천수만의 영웅전사들을 키우시었지만 오늘도 매일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열렬히 애국자, 시대의 영웅들로 키워주시는 자로써는 어버이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한생과 불멸의 력도업적 이 방방곡곡에 아로새겨져있는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는 누리에 찬연히 빛내어나갈것이다.

계철명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므니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부주관 김영남

로므니아 대통령 당선자 클라우스 요한니스각하

나는 당신이 로므니아 대통령으로 선지되는데 대하여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3(2014)년 11월 20일



위대해보고있었다. 1. 평양 어린이시로품용장에서!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공산이 걸어온 자랑스런 력사를

## 잊지 못할 2011년의 나날을 더듬어

제일 큰 락

3년전 정초 어느날이었다.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리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되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외진 산중초소나 섬구분대 활겼이 이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이리나 더 찾아가시며 군력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수많은 나날들을 추억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인민군인들을 찾아 우리 나라의 력이랑 명은 다 넣었고 산이란 산은 거의다 올라가보았다. 나의 한평생은 군인들을 위한 한평생이라고 말할수 있다. ... 우리 장군님 찾으신 많은 초소들

여러날에 걸친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다음날인 5월 2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선 1호발전소 통일연제를 찾으신다.

군인건설자들이 이룩해놓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통일연제를 건설하면

과 땅에 젖은 야전복이며 색바랜 야전술웃이 어려와 모두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한 일군이 그이께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존엄한 선군길을 아무리 세일이 흘러도 잊지 않을것이라고 모두의 진정을 담아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앞으로 변함없이 수령님께서 열어 바쳐오신 한길을 역세게 걸어나갈것이라고, 그 길에 자신의 인생의 락이 있고 가장 큰 행복이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군력이 왜 그토록 강하고 어떻게 되어 혁명무력이 불패의 대오로 승승장구하는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체험하게 되는 력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라고, 인민군대에서 통일연제로부터 전철을까지의 도로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회현발전소건설에 동원될 다른 단위들도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도로포장공사를 할것이라고, 인민군대가 선구자가 되자고 말씀하시었다.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제일 먼저 인민군대에 맡겨주시며 군인들을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은 도로포장공사를 끝낸것으로 통일연제길을 걸을수있고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멋있게 철수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11월 30일 찬바람부는 곳은 남쪽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것을 기억하며 다른 인연을 맺은 중대였다.

4년전 이곳을 돌아보시고 다음번에 와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었던것이다.

그날 중대의 여리움을 돌아보시며 전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념사진을 찍자고, 오늘 4년전의 그 약속을 지키는셈이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전사들과의 약속은 최고사령관도 어쩔 권리가 없다고 하시며 병사들을 찾아 밀고 힘한 전진길을 가고 또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모가 뜨거워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부대지휘관이 위대한 장군님께 전사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이렇게 추운 날 또다시

찾아주시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전사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루를 막아 말씀하시었다.

힘한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중대를 찾으시어 크나큰 사랑과 애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들 군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뢰었다.

《장군님, 우리 초소도 또 오십시오. 이런 추운 날과 무더운 날에는 오지 마시고 화창한 봄날, 풍요한 가을에만 오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에게 그러자고 말씀하시었다.

오늘도 우리 군인들 가슴마다에는 병사들을 찾아 밀고 힘한 전진길을 이어가시며 사랑만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뜨겁게 간직되어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한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친다

## 물절약형영농방법도입에 중점을 둔 작전

온천군 일군들의 다음해농사차비작전에서 주목되었는 것이 있다. 다음해에 물절약형의 농법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알곡수출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영농방법을 대담하게 혁신하기 위한 실속있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에서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다.》

군일군들이 올해농사를 총화하면서 일치하게 견해를 같이 한 것이 있었다. 가물극복이자 알곡수출이라는 것이었다.

올해에 오래동안 지속된 왕가물은 군안의 농장들에서 알곡생산을 높이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대우기 건조지에는 대부분인 조건에서 다음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물보장대책을 바로 세워야 하였다.

하물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땅에서 생명수를 찾아내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모반이공사를 통해 이 곳 할데 대한 문제, 갈고와 우물을 파서 물원천을 찾아내기 위한 방도를 놓고 열기된 토론을 하였다. 그 때 군역일군들은 왕가물이 든 올해의 현실을 교훈적으로 돌이켜 보고 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다.

### 온천군 일군들의

저류지와 갈고, 우물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만약 다음해에 올해보다 더 심한 왕가물이 들어 여기에 물이 충분히 차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일군들은 열광한 마추불분 선듯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군역일군은 물확보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업에서 중요한 예비가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수순으로 들어두고 적은 물로 소출을 높일 수 있는 영농방법과 기술을 찾아 도입하는데 알곡수출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깊이 새긴 일군들은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며 물절약형농법도입에 중점을 둔 농사차비작전을 펴나갔다.

먼저 중시할 것이 가물극복에 효과적인 품종을 선택하는 문제였다.

일군들은 농사에서 기본은 종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올해 심었던 논벼 품종과 정보당 수확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품종은 왕가물이 든 올해와 같은 조건

### 일군들의

에서 건조지에는 심으면 정보당 수확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 원인은 가물건조성질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건조지에는 많은 군의 실정에서 결코 소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군역동농장 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들에서 적은 물로 소출을 높일 수 있는 품종들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자검사를 기술적으로 대로 하여 농장들에 공급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군역일군들은 선택한 품종의 비모를 어떤 형태로 기르겠다는가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주전을 세웠다.

올해농사경험은 같은 품종이라도 모기르기형태에 따라 생육상태와 수확고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더욱 확증해 주었다. 송현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서 생형모를 받아들이며 올해의 모를 영양토를 가지고 포전에 나가도록 모살이를 하지 않아 초기생육상태가 좋았으며 가을에 수확이 더 잘 되었다. 영양토조건도 마찬가지로 초기생육상태가 좋았으며 가을에 수확이 더 잘 되었다. 영양토조건도 마찬가지로 초기생육상태가 좋았으며 가을에 수확이 더 잘 되었다.

이 지역들에 저류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군일군들은 올해 가물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고산협동농장 제7작업반에 먼저 저류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출이 높지 않은 것은 해마다 저류지마다를 파하여 보수하였었다.

그러나 다른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길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저류지들을 건설해야 하겠는가?

현실은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지 못하는 지역들에 자연적으로 개천-테정호물길보다 높은 지역이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올해에도 저수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부족하였지만 정보당 알곡수확고도 높지 못했다. 물은 군적으로 볼 때 그런 면적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속에서 이날부터 끝나면 총동원하여 물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공사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

### 사업에서

이런 발생태도판에는 물을 전면 대지 않고 뿌려주기때문에 물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특정한 모를 길러낼 수 있었다.

과학성이 담보되지 책임일군들은 다음해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면적에 영양토모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다그치도록 하였다.

농장들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모를 발생태도판에서 키우는 데 필요한 모판잔재료와 흙그리고 비모판종합영양제생산 준비 등을 선행시켜나갔다.

책임일군들이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인다는 중시한 것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적은 물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는 데서 효과적인 논벼재배방법과 유기질비료생산리용방법을 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 둘은 올해 여러 농장에서 그런 방법들을 받아들여 좋은 결실을 거둔 사실에 주목을 들었다.

봉원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경우를 보자. 이 작업반에서는 논벼이랑식재배를 하면서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생산리용하여 지난해보다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였다. 책임일군들은 그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작업반에서는 이랑식재배를 하되 다른 모를 번 포전에 반드시 정보당 수확고도 훨씬 높았다.

### 작전

전보다 적은 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마른씨에만 쳐서 땅이 다져지지 않는데다가 이랑이 항상 드러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땅속에 산소공급이 잘되어 논벼의 활성도 높일 수 있었다. 여기에 람조류생물활성퇴비까지 내린 토양에 질소는 물론 여러가지 유기물질함량이 훨씬 늘어나 논작물생육에 유리했다. 특히 땅이 알맞이모양의 구조조로 양이 변화되어 물을 잡아두는 능력이 높아져 가을을 이겨내고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다.

그 우월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된 이상 책임일군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다음해에 이랑식재배를 하는 것을 더 늘려 작전을 하고 농장들에 나가 적지선정을 바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장들에서 정공확보를 비롯한 람조류생물활성퇴비생산준비를 미리 갖추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었다.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만드는 데 요구되는 소석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내밀었다.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새겨안고 대로의 기관차로 되어 내달리며 혁신적인 영농방법의 도입과 문제해결로 다음해알곡수출의 돌파구를 기여하여 열매를 거두기 위해 불같은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 단천시

### 오동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농사일을 다 기계로 하려면 트랙터로 함께 짐을 싣고 부리는 기계, 모내는 기계, 김매는 기계, 비로 치는 기계, 가을걷이하는 기계, 날달리는 기계를 비롯하여 영농공정별 모든 일을 기계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농기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단천시안의 농촌들에서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전투가 한창 벌어질 때였다. 오동협동농장에서는 가을걷이, 날달리기와 함께 한가지 공정이 더 추진되고 있었다. 다음해 농사를 위한 비모판잔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내밀었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 모판잔재료를

###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 모판잔재료를

###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이 농기계를 도입하면 가을이 되면 이랑식재배를 할 때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모판에서 다듬길 내는 동시에 때를 훑고 수평고구기까지 하므로 종전보다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일군들은 이처럼 모판잔재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농기계를 리용하여 모판잔재료를 가을에 끝내기 위한 조직

을 세웠다.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가을갈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 평산군에서

농사차비를 잘해내는 데는 높은 뜻을 받들고 평산군의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갈이를 다그치고 있다. 주무되는 것은 일군들이 가을갈이를 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를 높이는 것이다. 왜 가을갈이를 중시하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수출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군일군들은 올해 농사경험을 통해 가을갈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되었다. 풍년협동농장만 보아도 지난해보다 정보당 알곡을 수백백 증수하였는데 그 비결의 하나가 가을갈이를 잘한 데 있었다.

일군들은 이 농장의 경험을 알아보았다. 농장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가을갈이를 한데 이어 올해 봄에 또다시 논갈이를 하고 농사를 지었다. 이때 잘한 것은 가을갈이를 하면서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깊이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땅을 깊게 갈 때 모래와 자갈이 나오는데 포전은 20cm정도로 갈아넣었다.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가을갈이를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농작물뿌리와 잡초들이 땅속에 묻혀 썩어 없어지므로 겨울철에 병해충과 길들이 없게 되었다. 또한 다져졌던 흙층이 부서지면서 물은 잘 스며들고 공기

이 지역들에 저류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군일군들은 올해 가물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고산협동농장 제7작업반에 먼저 저류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출이 높지 않은 것은 해마다 저류지마다를 파하여 보수하였었다.

그러나 다른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길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저류지들을 건설해야 하겠는가?

현실은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지 못하는 지역들에 자연적으로 개천-테정호물길보다 높은 지역이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올해에도 저수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부족하였지만 정보당 알곡수확고도 높지 못했다. 물은 군적으로 볼 때 그런 면적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속에서 이날부터 끝나면 총동원하여 물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공사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

이 지역들에 저류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군일군들은 올해 가물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고산협동농장 제7작업반에 먼저 저류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출이 높지 않은 것은 해마다 저류지마다를 파하여 보수하였었다.

그러나 다른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길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저류지들을 건설해야 하겠는가?

현실은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지 못하는 지역들에 자연적으로 개천-테정호물길보다 높은 지역이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올해에도 저수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부족하였지만 정보당 알곡수확고도 높지 못했다. 물은 군적으로 볼 때 그런 면적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속에서 이날부터 끝나면 총동원하여 물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공사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

이 지역들에 저류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군일군들은 올해 가물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고산협동농장 제7작업반에 먼저 저류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출이 높지 않은 것은 해마다 저류지마다를 파하여 보수하였었다.

그러나 다른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길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저류지들을 건설해야 하겠는가?

현실은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지 못하는 지역들에 자연적으로 개천-테정호물길보다 높은 지역이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올해에도 저수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부족하였지만 정보당 알곡수확고도 높지 못했다. 물은 군적으로 볼 때 그런 면적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속에서 이날부터 끝나면 총동원하여 물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공사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

이 지역들에 저류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군일군들은 올해 가물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고산협동농장 제7작업반에 먼저 저류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출이 높지 않은 것은 해마다 저류지마다를 파하여 보수하였었다.

그러나 다른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길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저류지들을 건설해야 하겠는가?

현실은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지 못하는 지역들에 자연적으로 개천-테정호물길보다 높은 지역이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올해에도 저수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부족하였지만 정보당 알곡수확고도 높지 못했다. 물은 군적으로 볼 때 그런 면적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속에서 이날부터 끝나면 총동원하여 물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공사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

이 지역들에 저류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군일군들은 올해 가물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고산협동농장 제7작업반에 먼저 저류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출이 높지 않은 것은 해마다 저류지마다를 파하여 보수하였었다.

그러나 다른 포전들에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게 물길을 내야 하는가 아니면 저류지들을 건설해야 하겠는가?

현실은 기본물결의 물이 흘러들지 못하는 지역들에 자연적으로 개천-테정호물길보다 높은 지역이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올해에도 저수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부족하였지만 정보당 알곡수확고도 높지 못했다. 물은 군적으로 볼 때 그런 면적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었다.

###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생산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

### 강남군 장교협동농장 일군들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경리부에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여러가지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3년째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논에 내어 그 덕을 크게 보고 있는 단군이요, 올해에 정보당 논벼 21이상 증수한 강남군 장교협동농장이다.

# 크 나 큰 은 덕 을 노래 하며 나 날 이 흥 하는 창 성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다. 여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 나가신 일터라고,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이신 제 품이라고...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역사를 전하며 로동당시대의 천지개벽을 소리높이 자랑하는 창성! 그 옛날 가난과 실업만이 실려있던 창성의 맑고맑은 산들이 오늘은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되어 행복에 행복을 덧쌓아 준다.  
영주천기술에 아담하게 일떠선 살림집들과 옥류관을 방불케 하는 창성각, 창성국수집, 현대화된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울려 퍼지는 창조의 동음,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마음껏 그려보는 미래원, 보람찬 로동의 기쁨과 삶의 희열을 담은 노래가 울려 퍼지는 문화회관, 배움의 길을 리 광명한 학교와 유치원...

얼마전 우리는 사회주의부귀영华的 눈부신 현실을 보듯듯이 펼쳐 창성군을 돌아보며 창성 땅의 오늘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과 강성변혁하는 선군조선에 펼쳐진 자랑스런 현실은 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올해에도 창성사람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산열매들을 거두어들였다.  
그 산열매들이 그득그득 보관되어있는 창성식품공장의 원료창고들은 볼수록 흐뭇하다.  
현대적인 가공설비들이 들어앉은 생산건물들에 산열매전처리

공정, 드롭프스생산공장, 파자생산공장, 음료생산공장, 컴퓨터조립 등이 그르하게 꾸러졌다.  
머루, 다래, 절파이, 도토리, 들깨... 이 지방에 흔한 산열매들이 30여가지의 맛좋은 식료가공품과 조아져나오는 광장은 정말 볼만 했다.  
우리의 눈금을 찢듯이 적셔주는 창성식품공장의 산열매들이 안겨 온다.  
척박하고 궁벽하던 창성땅에 인민의 락원을 펼쳐주시러 그처럼 마음쓰신 어머니수령님의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겨오신 헌신의 자욱자욱은 그 열매였었다.  
274일의 현지도일수와 4만 5000여리의 현지도로성,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그

대로 창성의 전변의 력사가 되고 행복의 열매로 주렁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 창성식품공장은 오늘과 같은 전변의 새 모습을 펼쳐수 있은것 아니라.  
공장을 돌아볼수록 풍부한 원

료원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뿐 아니라 앞선 과학기술적대우에 확고히 올라서서 내달리는 창성의 식료가공공업의 발전면모가 확연히 알려졌다.  
창성중이공장에 또 남다른 영광과 자랑이 깃들어있었다.

공장에서는 산들이 무성하 나 무로 학습장과 질좋은 종이제품들을 팡팡 생산하고있다.  
창성사람들이 자기 고장의 원료를 만들어낸 종이를 거들만져보고 쓸어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수 펜을 드시고 세번이나 써보셨던 《내 나라》라는 글밭이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며 우리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창성가구공장에서 생산되는 이불장, 옷장 등 가구제품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 군에서는 물론 다른 지방에서도 그 인기가 대단하다.  
수십그루의 과일나무들이 아지를 펼친 공장구내는 마치도 파수원을 방불케 했다.  
해마다 탐스러운 과일들이 달리는 나무들이 공장의 운치를 한껏 돋군다는 일군의 말에 우리의 마음도 결코 흥겨워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커다란 만복을 표시하시며 대단하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신 창성식품공장의 양털가공기는 어느모로 보나 흠잡을데 없었다.  
군에서 생산한 양털과 양털실을 가지고 이불과 모래의, 목수전 등을 만들고있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손수 만져보시기까지 하시며 그것을 리용할 군내인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산물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러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많은 직물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있었다.  
창성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따라 우리가 들어선 곳은 푸른색지붕을 건넌 떠민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이었다.  
겨울을 깔아놓은듯 한 바닥이 산뜻한 벽장식과 갖가지 모양의 무리들, 독특하게 꾸러진 식사실들에서 메밀국수, 빵, 맥주, 전골, 불고기, 단고기장 등 갖가지 음식들을 봉사받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평양에서 나들이를 왔던 사람들이 옥류관에 온것 같대며 허를 찌다는 이야기를 결코 무심히 들을수 없다.  
산물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속에 깃들여있는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리라.  
하기에 행복에 겨울수록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걱정을 누릴길 없어하는 창성사람들이다.  
영소때, 양떼가 옥실거리는 옥포축산전면동농장에 가보아도, 공업품상점과 식료품상점들의 매대에 가득한 인민소비품

들과 식료가공품들을 보아도 창성땅에 선군시대의 사회주의 선경, 지상락원을 꾸려주시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날과 날들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자랑스러운 전변의 력사를 아로새겨온 창성은 오늘도 우리 당의 사랑속에 날아가고 있다.  
지난해 창성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창성같은 군은 없다고, 대원수님들의 명도사적이 많이 깃든 곳이기때문에 오늘도 창성군은 전국의 앞잡이로 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지금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창성땅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일념으로 가슴뛰고있다.  
창성땅의 천지개벽의 증전자 마냥 평마루에 우뚝 솟은 황금산에서 우리는 그레보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아래 인민의 리상이 천만가지 북으로 활짝 꽃피날 강성변혁의 찬란한 매일을.  
글 본사기자 조경철  
사진 본사기자 신승혁

##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다



## 자 기 지 방 의 원 료 로 질 좋 은 제 품 들 을 생 산



##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연평도포격전에서 당한 쓰디쓴 패전의 교훈을 순간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무모한 신불질을 해했던 도발자들에게 무지비한 보복의 불벼락을 들이치는 연평도포격전이 있는 때로부터 4년세월이 흘렀다.  
그때로부터 많은것이 변했다. 남조선 괴뢰전도 바뀌었다.  
그러나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대결본색과 도발방식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오늘도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들을 등에 업고 《호국》합동군사연습을 백령도와 연평도일대에서 이 광란적인 포살탄사격으로 마무리하려는 흥세를 꾸미고있다.  
참사적인 군사적간장으로 폭발전야의 함에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서남전선 열적지역에서 또다시 벌리는 포살탄사격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지난 연평도포격전에서 당한 수피스러운 참패에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연평도포격전이 벌어지던 그날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제 죽을지도 모르고 총포탄을 마구 쏘대다가 우리 서남전선의 영웅한 포병들에 의해 처참하게 얻어맞고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하였다.  
그 이후 발파소리까지 포사격으로 작각하며 악몽이 되었던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다시 도발광기에 떠들 돌아치기 시작한다는 연평도포격전이 벌어지던 2년이 지나서부터였다.  
2012년 10월 리명박역도는 연평도포격전에 대해 《세력가》해야 한다면서 괴뢰군부호전광들과 합동참모본부로 하여금 패전을 《승전》으로 《탈바꿈》시키고 《기념식》과 같은 해피한 판데극을 《연례행사》처럼 벌려놓게 하였던것이다.  
리명박역도와 같은 동족대결판판이 고인해벌수 있는 흑백전도의 착상 아닌 《착상》이었다.  
괴뢰들은 이번에도 연평도포격전이 발생된 11월 23일을 계기로 개죽음을 당한 도발자들에게 대한 《위명제》요, 《수훈식》이요, 《참배식》이요 하는 판데놀이와 함께 무리시위까지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세상에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서 《기념식》을늘어치며 벌리며 천명피하게 놀아내는것은 유독 괴뢰군부호전광들밖에 없었던것이다.  
비루먹은 개가 꼬리치레를 한다는 격으로 꼴불견처럼 그지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런 괴뢰군부호전광들이기에 지금까지 수피스러운 패전을 만회해보려고 더 우발적으로 책동하여왔다.  
지난 2011년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 도발적점을 신설확대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6려단과 연평도수준병력을 대폭 증강하였다. 여기에 《K-9》포사포, 다련장로켓, 신형포병이다. 《코브라》공격직승기, 《K-10》은반차량 등 방대한 무장장비들이 증강투입되었다.  
침략무력증강과 동시에 괴뢰들은 서남전선지역에서의 군사위협체제도 괴뢰군주도로부터 《현》이면합체제로 이전시켰으며 해상교전규격도 중전의 5단계에서 《경고통신-교사격-격파사격》3단계로 줄이며 도발강도를 더 높이고도 하였다.  
불과 1500명 남짓한 주민과 7km의 면적에 지나지 않는 연평도에 《방어사령부》라는것을 내오고 방대한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삼각전체화와 지휘체계까지 수정보충해뒀건 철두철미 새로운 군사적도발이다.  
현실적으로 괴뢰들은 연평도포격전에서 실패를 맞은 이후 지금까지 서남전선지역에서 매달과 같이 수습자재의 포사격훈련과 각종 도발에 팡분해왔다.  
최근에는 예민한 수습이 수많은 전투합선들을 빈번히 들이밀어 서남전선지역의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몰아가는 팡기를 부러내고있다.  
우리 서남전선군 장병들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

## 제18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

제18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되었다. 나라의 체육과학기술의 발전 면모를 보여준 전시회는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파격에 이룩된 성과와 경협을 교환하고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실전에 도입할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조선체육대학이, 체육특정기구부문에서는 평양시 서성구역체소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개별적대상들에게 해당한 중서가 수여되고 시상식이 있었다.  
김영훈체육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당의 체육강국건설시책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전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체육과학기술의 성과가 금메달로 이어지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우리 나라 설경선수 2014년 청도그랜드상 유술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설경선수가 2014년 청도그랜드상유술경기대회에서 78kg급경기에서 우승하였다.  
2012년 세계겨너유술경기대회와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것으로 설경선수는 평시에 편마해

## 당의 은정에 보답할 일념안고

귀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주인은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또 새기며 우리 당의 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길 열망으로 이들은 순간의 침체나 담보를 모른다.  
자기 땅에 밭붙이고 눈을 세게 보노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최첨단과전을 힘있게 벌리며 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 어린이건강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평양 1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어린이건강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21일 옥류아동병원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는 조선어린이후원협회 회장인 김영훈 보건성 부상, 협회회원들, 과학, 보건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스레판 파울 조스트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 대표부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발언에 이어 어린이건강관련 국제토론회 및 경험교환회가 있었다.

##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평양 1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123일 10시부터 대성산체육단, 평양청도국제체육단, 장산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짧은주루속도빙상 1급 여자 경기가 빙상관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빙상판에서는 공화국선수대회 빙상호케이 1급 남, 녀경기가 계속 벌어지게 된다.  
언제나 앞채를 매고  
순천구두공장 당세포비서 김옥녀동무는 30여년을 공장에서 일하면서 성실한 맘을 바쳐가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그는 공장을 훌륭히 개건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며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고도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는 어머니 우리 당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치며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 우리 인민을 우롱하는 참을수 없는 특대형정치적도발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극단한 지경에 번져지고있다. 미국의 사측하에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는 최근 강권과 압력으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통과시켰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인권결의》의 통과는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이다.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을수 없는 격분을 자아내었다.

권위는 유엔문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졸렬하게 조작된 《인권결의》를 우리 인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치맛은 분노를 가지고 전면배격한다.

특히 우리는 EU(유럽동맹)나라들과 일본이 이번 《결의》채택의 하수인으로서 내분내외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죄를 짓고 부모형제까지 버리고 도망간 《탈북자》들의 조작된 《증언》에 기초하여 유엔의 공식결정으로 인정될 만 초보적인 자기도 신뢰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분문, 모순투성이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 그것은 악랄한 비방장상으로 일관되어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서문짜리 협잡문건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한 나라의 내부문제를 논하는 《결의》라면 해당 나라의 정치체제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에 의거하는것이 초보적인 순리이다. 유엔의 역사에 당사국과의 대화, 당사국에 대한 한자제의 방문도 없이 《조사보고서》라는것이 부랴부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결의》가 나온것은 없다.

해마다 《년례인권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미국의 인권기준에 따르면 세상에 걸려들지 않을 나라가 없다. 이번엔 미국이 거수기를 굽어모아 《결의》채택에

필요한 투표수를 가까스로 채웠지만 그 중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현조를 자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때문에 투표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결의》채택놀음이 정치적협잡의 결과물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번 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해당 나라 인민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 누구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할수 없다. 그 나라 실태에 대하여 잘 아는것도 그 나라 인민이며 그 인민이 좋다면 그것이 곧 인권기준으로 된다. 《탈북자》들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버림을 받은 조선민족이기를 그만둔자들로서 인민들을 대표할수 없는 한자 력사의 오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를 압살하는것을 국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갖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는 미국에 일부 나라들이 추종한것은 자기의 주대도 주권도 없이 추종하는 하수인들의 가련한 처지를 엿보게 한다.

추종세력들이 제출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의 산물로서 진정한 인권보호증거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현실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을 보고 객관적으로 편견없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오늘 우리 조국은 젊음으로 비약하고 망망과 회열이 넘치는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로 더욱 번모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보다 더 좋은 곳을 모른다. 서로 물고뜯는 악육강식의 지배하는 세계에서 썩어들어 썩어들어가는 우리 세상의 참모습을 똑바로 불러만두라.

우리는 이번엔 인권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의 지도 명백히 밝히고 인권태화과 교류를 적극 도모해나갈 의의도 충

분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적대세력은 끝내 협력을 거부하고 대결의 길을 택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저들이 표방해온 《인권노력》이 진정한 인권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혼의 가지도 없는 위선이었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추종이고 아부였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충고하건대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자들은 물던방울던방이가 앞서 범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격언을 명심하고 놀아내야 한다.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우리에게 대한 《인권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한것은 공화국을 마치 《인권유린시대》인것처럼 날조, 매도하여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데 그 최대적목적이 있다. 미국의 리무어없는 《인권》소동이 나중에는 무력침공으로 끝난다는것은 지나나 력사가 말해주고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1999년에 《인권과 소수민족보호》라는 명분으로 일으킨 유고슬라비아전쟁을 잊지 않고있다. 미국은 그것을 우리 공화국에서 처연해보려 하고있다. 《인권문제》를 핵문제와 함께 반공화국압살정책의 2대기둥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인권을 주실로 어떻게 하나 우리의 제도변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엄중한 정치적으로발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이미전에 미백악관 대변인은 《북조선인권법》이 우리 공화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겠다》이라는것을 공언하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그것이 《탈북자보호》의 명분이며 《북조선의 체제붕괴를 피하는 전략》이라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추종세력으로 하여금 이번 《결의》에서 우리에게 《인권유린법》이라는 감투를 씌우게 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국제사회는 개별적나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여 그 나라의 제도건복에 동용할수 있는 위험한 전례가 만들어지고있는데 대하여 각성해야 한다.

국제법이 왕왕 강권에 밀려우고있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참다운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들이면 국력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국회를 발동하여 내정간섭적인 《북인권법》까지 채택하여놓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의 제도전복을 위해 《인권》공세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다. 이것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심산으로 유엔인권리사회를 조종하여 《북인권상황》을 전달한다는 《북인권상황조사위원회》까지 날치기로 조작해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북인권보고서》와 《인권결의》라는것을 만들어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반공화국《인권》공세를 국제적범위로 확대시키고려 하고있다. 이번엔 미국의 주도밑에 강압포괄된 반공화국《인권결의》가 그 절파물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으며 그를 위해 《인권공세》를 주실로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려 하고있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국제법이 무시되고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인권이 자국이라는 우리의 지분을 더욱 확충해주고있다.

우대 한 령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나라의 자주권이 강탈당하고 외세의 지배를 받는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곧 국권이요 자주권이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한다. 자주권이 유린당하면 인권도 무참히 유린당하게 된다는것은 진리이다.

미국이 강도높게 벌리는 《인권》공세는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침략행위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문제를 결코 대조선교섭안정협상을 끊임없이 외교하게 벌려왔다. 그것이 핵을 추진 못하게 집요하게 하는 우리의 《인

## 또다시 확증된 우리의 지론

◇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저들에게 지지하고 추종하는 EU나라들과 일본을 앞장에 내세우고 강권과 정치경제적압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결의》를 강압통과시켰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보다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국회를 발동하여 내정간섭적인 《북인권법》까지 채택하여놓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의 제도전복을 위해 《인권》공세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다. 이것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심산으로 유엔인권리사회를 조종하여 《북인권상황》을 전달한다는 《북인권상황조사위원회》까지 날치기로 조작해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북인권보고서》와 《인권결의》라는것을 만들어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반공화국《인권》공세를 국제적범위로 확대시키고려 하고있다. 이번엔 미국의 주도밑에 강압포괄된 반공화국《인권결의》가 그 절파물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으며 그를 위해 《인권공세》를 주실로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려 하고있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국제법이 무시되고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인권이 자국이라는 우리의 지분을 더욱 확충해주고있다.

우대 한 령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나라의 자주권이 강탈당하고 외세의 지배를 받는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곧 국권이요 자주권이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한다. 자주권이 유린당하면 인권도 무참히 유린당하게 된다는것은 진리이다.

미국이 강도높게 벌리는 《인권》공세는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침략행위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문제를 결코 대조선교섭안정협상을 끊임없이 외교하게 벌려왔다. 그것이 핵을 추진 못하게 집요하게 하는 우리의 《인

권문제》를 떠들며 우리를 먹여보려 하고있다. 원래 다른 나라들을 강도적으로 타도않거나 정권전복을 시도할 때마다 《인권공세》와 같은 당치 않은 구실을 내대는것이 바로 미국이 흔히 쓰이던 상투적수법이다.

지난 세기말 미국이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의 간판밑에 일으킨 유고슬라비아전쟁과 세 세기에 돌이와 《인권공세》를 부르짖으며 강행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이 그 생동한 실례이다. 결과는 참혹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당하였으며 지난 시기에 비교적 부유하였던 이 나라들은 초보적인 생존조건도 갖추지 못한 비참한 나라로 되였다.

미국은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을 말살하는데 이번엔 새끼를 수발을 적용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이 《인권유린국》으로 되어 《처벌대상》이 된 력사적사실과 오늘의 엄중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국권이 있어야 인권이 있다는 진리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있다.

◇ 있을수 있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자위적전쟁역력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공세는 일시적인 전술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다. 《인권문제》를 주실로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려는것이 미국의 최종목적이다.

인권의 핵은 자주권이다. 나라의 자주권은 말로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자위적력에 의하여 담보되며 이것은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력사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들은 메워없이 나라의 자주권을 외세에게 빼앗기고 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현실은 우리가 자위적국방력을 더욱더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만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참다운 인권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려는 미국의 어떤 간섭과 전횡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결렬히 옹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전쟁역력을 무제한하게 강화하여나갈것이다.

미국이 강도높게 벌리는 《인권》공세는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침략행위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문제를 결코 대조선교섭안정협상을 끊임없이 외교하게 벌려왔다. 그것이 핵을 추진 못하게 집요하게 하는 우리의 《인

권문제》를 떠들며 우리를 먹여보려 하고있다. 원래 다른 나라들을 강도적으로 타도않거나 정권전복을 시도할 때마다 《인권공세》와 같은 당치 않은 구실을 내대는것이 바로 미국이 흔히 쓰이던 상투적수법이다.

지난 세기말 미국이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의 간판밑에 일으킨 유고슬라비아전쟁과 세 세기에 돌이와 《인권공세》를 부르짖으며 강행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이 그 생동한 실례이다. 결과는 참혹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당하였으며 지난 시기에 비교적 부유하였던 이 나라들은 초보적인 생존조건도 갖추지 못한 비참한 나라로 되였다.

미국은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을 말살하는데 이번엔 새끼를 수발을 적용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이 《인권유린국》으로 되어 《처벌대상》이 된 력사적사실과 오늘의 엄중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국권이 있어야 인권이 있다는 진리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있다.

◇ 있을수 있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자위적전쟁역력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공세는 일시적인 전술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다. 《인권문제》를 주실로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려는것이 미국의 최종목적이다.

인권의 핵은 자주권이다. 나라의 자주권은 말로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자위적력에 의하여 담보되며 이것은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력사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들은 메워없이 나라의 자주권을 외세에게 빼앗기고 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현실은 우리가 자위적국방력을 더욱더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만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참다운 인권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려는 미국의 어떤 간섭과 전횡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결렬히 옹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전쟁역력을 무제한하게 강화하여나갈것이다.

##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날조로 일관된 모략문서

역사에 류례없는 반공화국《인권결의》가 강압포괄되었다.

이번 《결의》가 신빙성이 있는것인가. 전혀 없다.

《결의》는 우리 나라를 《인권유린시대》인것처럼 꾸며놓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인륜범죄》의 감투를 씌우고있다.

우리 나라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라는것은 세 세상에 알려져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국가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 인민이 놓여있다. 평범한 녀성의 해산방조를 위해 사방의 비명까지 듣고 교를 있는 몇몇 아이들을 위해 은정넘친 분고를 세우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이다. 인간 사랑, 인민사랑의 이야기를 끝까지 끝이 없을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그야말로 인권의 천원이다.

민일 국가가 인민들에게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였더라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력사의 동판기를 이겨내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있는것은 그 제도가 인권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고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는 우리 나라의 이 아름다운 현실과 자기 제도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악랄하게 비방하고 비방장상화하였다. 말그대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모략문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번 《결의》를 우리의 사상과 제도, 정책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 우롱으로 간주하면서 치맛은 격분을 안고 단호히 배격하고있다.

누가 이따위 나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는가.

EU나라들과 일본이 한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지 제출자는 미국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모든 배후조종을 미국이 하였다. 《결의안》

을 더럽게 작성하고 EU나라들과 일본을 추종세력처럼 내세워 유엔총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것이 통과되도록 다른 나라들에 집요하게 압박과 회유를 들이댄 장본인이 다른이전 모략과 음모의 능수이며 왕조인 미국이다.

《결의》에 언급된 기초자료들은 우리 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쳤거나 유괴되어간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탈북자》들의 정체를 놓고보아도 이번 《결의》가 얼마나 황당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공화국의 차별없는 사회정책을 받았다. 무로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배은망덕하게도 건달을 부리며 온갖 못된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법적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인간주물들이다.

미국 등 서방나라들은 이런자들을 제격 건이었고 그들의 《증언》을 진실로 묘사하고있다. 이자들은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황당한 거짓말로 우리의 준엄높은 공화국을 극악하게 힐롱하였다.

총체적으로 그들은 의리도 망심도 없고 자기 부모와 조국도 모르는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이다. 이런 인간쓰레기들은 한층도 인연도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범죄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을 지운다. 그 엄중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구형을 주는 나라들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EU나라들, 일본은 우리 공화국과 적대적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하여 이런 범죄자들, 인간쓰레기들이 떠밀린 나날을 《결의》의 자료로 써먹었다.

그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힐롱하는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고있는것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그 대가로 돈을 쥐여주기때문이다.

다. 인간쓰레기들은 몇푼의 돈을 벌여 더러운 제 명을 부지해보려고 자기를 낱아 키우려고 풀어안아주었던 어머니조국의 영상에 경정적으로 충출을 해내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어떤 인간주물들은 명을 환장하여 우리의 조국부서, 기관들의 공인을 위조한 감자도장이 찍힌 허위문건들까지 만들어 제공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결의》가 우리의 국권을 유린하기 위해 미국이 조작해낸 범죄적정서의 문건이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이번 《결의》에는 우리 나라의 의사나 립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보고서》는 우리 나라와 대화도 한번 하지 않고 우리 나라에 와서 현실을 보지도 않은 상례에 자기 작성되었다. 유엔의 역사에 이런 일도 없었다.

이번 《결의》는 인권문제를 결코 복음을 단행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적책동의 발로이다.

역사는 1990년대에 들어와 페르사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쿠웨이트의 한 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던 한 소년과 미국의 한 병원에서 이라크군병사들의 《인권유린만행》을 온 세계에 공개한 이후 미국은 전쟁을 일으켰다. 후에 쿠르드인의 한 소년은 쿠웨이트의 왕궁에서 미국주재 쿠웨이트대사의 딸이 병원에서 일한적이 전혀 없었다. 미국의 모략이었다.

미국은 이번 《결의》로써 북침전쟁의 서막을 열려고 시도하고있다.

우리는 이에 팔방을 끼고 가만있을수 없다. 미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전쟁역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있다.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리 경 수

오늘 미국은 그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주체대국에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이 어떻든 저랬든 하면서 헛나발을 불어내고있다. 후안무치하고 철면피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하다면 인권유린의 왕조 미국이 떠드는 《인권》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미국은 저들의 반동적인 가치관에 기초하여 인권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세계인권기준이라고 떠들며대면서 여기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때대로 대비해보고 맞지 않으면 《인권침해》요, 《인권유린》이라고 하면서 가스개를 늘어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메워없이 《인권유린국》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방장상화하고있으며 저들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도 서슴치 않고있다. 그 대조선적대시 1999년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의 간판밑에 일으킨 유고슬라비아전쟁을 들추 수 있다.

미국과 나토는 유고슬라비아에 80 일동안에 85 000대의 전투기를 포함한 12 000대의 비행기를 연 2만 5 000회이상 출격시켜 수 많은 대상을 무차별공격을 들이치고 2 000여기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으니 1만 수천t의 폭탄을 투하

하였다. 미국과 나토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이 죽고 6 000여명 이상이 다쳤다. 이 10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것이 《인도주의적개입》이며 《인권공호》를 위한것이라고 철면피한 소리를 들을 채웠다.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인권유린》이라고 하면서 가스개를 늘어내고 있다.

미국은 이번 《결의》로써 북침전쟁의 서막을 열려고 시도하고있다.

우리는 이에 팔방을 끼고 가만있을수 없다. 미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전쟁역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있다.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리 경 수

하였다. 미국과 나토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이 죽고 6 000여명 이상이 다쳤다. 이 10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것이 《인도주의적개입》이며 《인권공호》를 위한것이라고 철면피한 소리를 들을 채웠다.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인권유린》이라고 하면서 가스개를 늘어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메워없이 《인권유린국》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방장상화하고있으며 저들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도 서슴치 않고있다. 그 대조선적대시 1999년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의 간판밑에 일으킨 유고슬라비아전쟁을 들추 수 있다.

미국은 이번 《결의》로써 북침전쟁의 서막을 열려고 시도하고있다.

우리는 이에 팔방을 끼고 가만있을수 없다. 미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전쟁역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있다.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미국은 이번 《결의》로써 북침전쟁의 서막을 열려고 시도하고있다.

우리는 이에 팔방을 끼고 가만있을수 없다. 미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전쟁역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있다.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미국은 이번 《결의》로써 북침전쟁의 서막을 열려고 시도하고있다.

우리는 이에 팔방을 끼고 가만있을수 없다. 미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전쟁역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있다.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리 경 수

미국내에서의 인권유린범죄 행위는 또 얼마나 많은가. 미국에서는 인종차별과 종족주의, 성적학대, 아동학대가 체계적으로 증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

특히 흑인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행위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매 시각 유색인종에 대한 구라와 살해, 위협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내에서의 인권유린범죄 행위는 또 얼마나 많은가. 미국에서는 인종차별과 종족주의, 성적학대, 아동학대가 체계적으로 증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

특히 흑인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행위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매 시각 유색인종에 대한 구라와 살해, 위협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내에서의 인권유린범죄 행위는 또 얼마나 많은가. 미국에서는 인종차별과 종족주의, 성적학대, 아동학대가 체계적으로 증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

특히 흑인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행위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매 시각 유색인종에 대한 구라와 살해, 위협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모스크바 11월 20일 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의무장 세력계 라브로프가 20일 유엔기판들이 재판검찰기관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가 유엔총회에서

로씨야와 무장 세력계 유엔기판들이 재판검찰기관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가 유엔총회에서

로씨야와 무장 세력계 유엔기판들이 재판검찰기관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가 유엔총회에서

로씨야와 무장 세력계 유엔기판들이 재판검찰기관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가 유엔총회에서

로씨야와 무장 세력계 유엔기판들이 재판검찰기관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가 유엔총회에서

로씨야와 무장 세력계 유엔기판들이 재판검찰기관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로씨야가 유엔총회에서

## 여러 나라들에서 항의시위와 집회, 파업 진행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17일 당국의 그릇된 건축조치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수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국회정사당을 행진하면서 계속되는 건축조치로 자기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는데

대해 항의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당국 철회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위진압에 동원된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아대며 탄압에 광분하였다.

그리스의 기갈리아에서 얼마 전 영국 BBC방송회사의 몇몇 된 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

어졌다. 시위에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최근 이 방송회사가 르완다의 력사를 외곡하고 이 나라 인민들을 모독하는 기록영화 방영한데 대해 단죄하고 회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낼것을 주장하였다.

스팔메스티나의 요르단강서

안지역 라파라호시에서 14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약 100명의 팔메스티나인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팔메스티나기발을 흔들면서 유대복고주의정권의 영도행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시위진압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시위자들을 향해 최루탄과 고무총탄을 연사하였다.

이탈리아의 로마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14일 당국의 그릇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

어졌다. 시위에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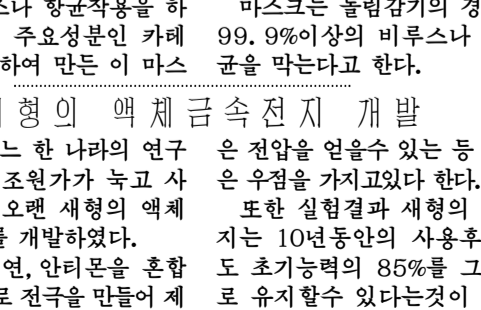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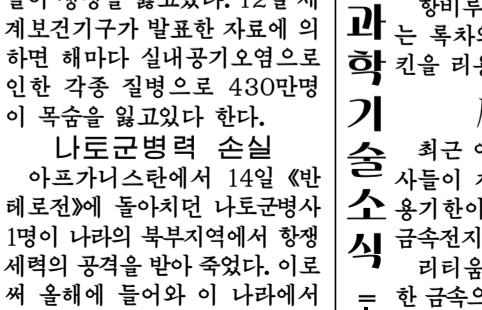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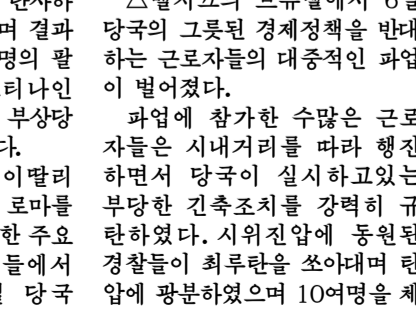
그들은 최근 이 방송회사가 르완다의 력사를 외곡하고 이 나라 인민들을 모독하는 기록영화 방영한데 대해 단죄하고 회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낼것을 주장하였다.

스팔메스티나의 요르단강서

안지역 라파라호시에서 14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약 100명의 팔메스티나인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팔메스티나기발을 흔들면서 유대복고주의정권의 영도행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시위진압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시위자들을 향해 최루탄과 고무총탄을 연사하였다.

이탈리아의 로마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14일 당국의 그릇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리는 미국인들